

娛侗一夢 (오공일몽)

즐기다 오
어리석을 공
일몽

각본: 백성욱, 박현수

원안: 백성욱

S# 1 인서트4:3

어두운 배경에서 본드를 쥐고 있는 손가락이 하나씩 펼쳐진다. 1, 2, 3.

손가락이 다 접힌 후 70~90년대 청소년 본드 흡입과 관한 각종 뉴스들이 나온다.

S# 2 성찬과 민혁의 자취방 / 밤 (무성, 흑백) 4:3

인서트에 나오던 뉴스들이 좀 아웃이 되자 핸드폰 화면으로 변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성찬이 보인다. 성찬의 의자에는 성찬의 가방이 걸려있다. 성찬의 책상 위에는 책 한 권과 쌓여있는 연필, 두루마리 휴지와 커터칼과 성찬의 성적표가 있다. 성찬(19/남)은 핸드폰에 나오는 뉴스를 오공본드를 만지작거리며 보고 있다. 성찬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있다. 성찬은 본드를 책상 오른쪽으로 던져놓는다. 성찬은 핸드폰에 나오는 뉴스를 끄고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를 본다. 그러자 <안달루시아의 개>에서 나오는 탱고가 흘러 나온다. 성찬은 영화를 보며 왼쪽에 쌓여있는 연필자루들 중 한 자루와 커터칼 한 자루를 각각 한 손에 쥐어 연필을 깎기 시작한다. 떨어지는 연필 조각들은 성찬의 성적표 위로 떨어져 쌓여간다.

한편 성찬의 옆 방에 앉아 있는 민혁(19/남)이 보인다. 민혁은 자신의 성적표를 한 번 본다. 민혁의 성적표는 1등과 2등으로 가득 차 있다. 민혁은 그런 성적표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좌절하며 구긴 뒤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다시 연필을 깎고 있는 성찬이 보인다. 성찬이 연필을 다 깎고 뽕족해진 연필 끝을 한 번 보더니 연필을 책상에 내려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민혁이 보인다. 누군가 민혁의 문에 노크를 한다. 민혁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자 성찬이 들어와 민혁의 어깨를 두드린다.

성찬 : 바람 쐬고 하자.(자막)

민혁이 성찬을 보고는 문제집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자 성찬은 짜증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성찬 : 잠깐만 쉬자. (자막)

민혁이 성찬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간다.

그들이 닫고 나가는 민혁의 방 문에는 '방해 금지'와 '노크!'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S# 3 집 앞 (벤치) / 밤 (무성, 흑백) 4:3

음악 <that's amore>가 나온다. 성찬과 민혁이 벤치에 앉아있다. 성찬의 시점에서 보이는 하늘의 달이 보인다. 성찬이 민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한다.

성찬 : (민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쉬엄쉬엄 해. (자막)

성찬은 허탈하게 웃는 민혁을 보고는 주위 눈치를 살피고 주머니에서 오공본드를 꺼내 보여준다.

성찬 : 같이 해볼래? (자막)

민혁의 의아한 표정이 보인다.

S# 4 성찬, 민혁의 자취방 / 밤 (무성, 흑백) 4:3

성찬과 민혁이 집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다. 성찬이 먼저 본드를 검은 봉투에 본드를 짜서 마셔 본다. 성찬이 본드를 잠깐 마시더니 코를 세게 비비며 봉투를 민혁에게 건넨다. 민혁이 봉투를 받지 않자 성찬이 말한다.

성찬 : 너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던 형들이 해보고 좋다고 알려준거야 한 번 해봐. (자막)

민혁이 잠시 고민하다 성찬을 방에서 내쫓으며 말한다.

민혁 : 그런 거 할거면 네 방 가서 혼자 해. (자막)

민혁은 성찬을 성찬의 방으로 쫓아내고 방문을 잠근 뒤 백색소음이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이어간다. 성찬은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며 쫓겨난다.

성찬이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져 놓고 바닥에 눕는다. 성찬이 누워서 뒹굴다 갑자기 멈춘다. 성찬의 눈에 봉투가 들어온다. 봉투에 있던 본드가 다 세어 본드가 바닥에 흐르고 있다.

성찬 : (바닥에 묻은 본드를 급하게 닦아내며) 아 시발 (자막)

성찬이 손으로 본드를 닦아내다 말고 손 냄새를 맡아본다. 성찬은 손에 코를 대고 쿵쿵거리다 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본다. 잠시 후 바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있는 성찬이 보인다. 성찬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정면을 본다. 성찬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한다.

성찬 : 별 것도 없구만 (자막)

성찬이 바닥에 묻은 본드를 닦으려 책상에 있는 휴지 쪽으로 일어나 갈 때 갑자기 <신세계로부터>가 나오기 시작한다. 성찬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본다. 성찬이 정면을 본 채 잠시 생각에 잠긴다. 성찬이 자신의 귀를 막아보자 음악이 작게 들린다. 성찬이 귀에서 손을 놓자 음악이 다시 크게 들린다. 성찬은 벽에다 귀를 대보기도 하고 창 밖을 내다보기도 한 뒤 현관문에다 귀를 대본다. 성찬은 흠칫 놀란 뒤 현관문을 천천히 열어본다. 성찬이 현관문을 열자 음악 소리가 커지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성찬은 현관문을 빨리 닫은 뒤 얼굴을 비비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혁이를 소리쳐 부른다.

성찬 : (소리치며) 민혁아(자막)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공부를 하고 있는 민혁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성찬은 문 뒤에 기대 호흡을 가다듬는다. 성찬이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현관문을 열어보고 문 밖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자마자 문을 닫는다. 성찬은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을 비빈 뒤 현관문을 다시 열어본다. 문 밖에는 노란 미니 드레스를 입은 준희(19/녀)가 서 있다. 흑백 화면에 준희와 노란 드레스만 색이 보인다. 성찬은 문을 빠르게 닫으려다 다시 열고 준희를 쳐다본다. 준희가 먼저 말을 꺼낸다.

준희 : 내가 조금 늦었어. 빨리 놀러 가자.

성찬 : (잠시 멈춰 생각한 후) 누구더라? (자막)

준희 : 나 준희잖아, 멍청아.

준희가 성찬의 팔을 잡아 당겨 뛰어 나간다. 그때부터 <Danzon No.2>가 들리기 시작한다.

S# 5 길 / 밤 (유성, 흑백) 2.35:1

성찬의 팔을 잡아 당기며 달려가고 있는 준희. 둘의 모습이 보인다. 성찬의 귀에는 <Danzon No.2>가 들린다.

S# 6 예다움홀 / 밤 (유성, 컬러) 2.35:1

성찬과 준희가 극장 문을 열고 들어간다. 성찬은 극장으로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본다.

성찬(N.A.) :(주위를 둘러보다 정면을 보고)집 주변에 이런 곳이 있는지 나는 이날 처음 알았다.

무대 위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있다. 준희가 소파에 앉고 성찬이도 따라 앉는다.

준희 : 성찬아 너 가방에 든 것 좀 가져와봐

성찬 : 가방? 나 가방 안 매고 왔는데?

준희 : (가방이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무슨 소리야. 너 가방 저기 있잖아.

성찬은 준희의 손 끝이 향하고 있는 곳을 바라본다. 그 곳에는 성찬의 가방이 놓여있다.

성찬 : (얼떨떨해하며 가방 쪽으로 간다) 저기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성찬이 가방을 열어 손을 넣어본다. 성찬이 가방에서 손을 꺼내고 성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병 맥주이다. 성찬은 병 맥주와 준희를 번갈아 쳐다본다. 소파에 걸터앉아있는 준희가 자신의 옆 자리를 손으로 톡톡 치며 성찬을 부른다. 성찬이 준희 옆에 앉아 맥주 한 병을 준희에게 건넨다. 준희는 맥주를 건네 받는다.

준희 : (맥주를 한 입 마시고) 너는 안 마셔?

성찬은 뺨뺨하게 앉은 채 맥주를 마시지는 않는다. 준희는 그런 성찬을 한 번 보고는 말한다.

준희 : (웃으며) 성찬아, 너는 안 들려?

성찬 : 뭐가?

준희 :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성찬아, 나는 맥주와 춤이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준희가 일어나 가방 쪽으로 걸어간다. 성찬의 뒤로 지나가는 준희가 보인다.

준희가 성찬의 가방에서 탭댄스용 구두를 꺼내어 신는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성찬의 구두를 꺼낸 뒤 성찬의 앞으로 구두를 던진다.

준희 : 신어, 너 거야.

화면이 컬러로 바뀐다.

그때부터 성찬의 귀에서 <Johnny B Goode>이 들리기 시작한다.

성찬 : (무언가에 홀린 듯 신발을 갈아신으며) 준희야 나 들려.

준희가 먼저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자 성찬도 어설프게 준희를 따라 발을 굴리며 둘은 음악에 맞춰 놀듯이 춤을 춘다. 춤을 다 춘 뒤 소파에 맥주를 든 채 앉아있는 준희와 성찬이 보인다.

준희 : 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잖아.

준희 : 내가 맥주 줄 테니까 눈 감아봐.

성찬이 눈을 천천히 감는다. 준희는 눈을 감은 성찬 앞에 서 자신의 입에 맥주를 머금고는 성찬에게 입을 맞춘 뒤 맥주를 성찬의 입으로 넘긴다. 맥주를 삼키는 성찬의 목이 보인다. 감겨있던 성찬의 눈이 커진다. 준희는 성찬의 눈을 손으로 가린 뒤 입을 맞춘다. 성찬이 눈을 떠보니 준희는 사라져있다.

S# 7 성찬, 민혁의 자취방 / 낮 (유성, 컬러) 2.35:1

자신의 집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성찬이 보인다. 민혁이 쓰러져 있는 성찬에게 다가가 깨우며 말한다.

민혁 : 성찬아 수업 시작한다, 빨리 들어와.

성찬은 피곤한 표정으로 일어나 이어폰을 핸드폰에 연결한 뒤 책상에 앉아 수업에 들어간다. 줌

안에는 수업을 듣고 있는 민혁의 모습도 보인다.

성찬 : 선생님 저 지금 출석 했습니다.

선생님 : 성찬이 일찍 일찍 들어와.

성찬은 핸드폰 앞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동안 성찬은 핸드폰 앞에서 잠에 든다. 잠에서 깨 피곤해하는 성찬이 코를 킁킁거리다. 성찬이 코를 킁킁거리다가 본드가 묻어있는 바닥을 발견한다.

성찬 : 아 맞다 시벌.

성찬이 책상 위에 있는 휴지를 챙겨 바닥에 묻어있는 본드를 닦아내다가 주위 눈치를 보더니 바닥에 묻은 본드 냄새를 맡아본다. 그러다가 성찬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본다. 성찬은 가방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본다. 성찬은 이어폰을 벗고 가방 쪽으로 가 그 안을 확인해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민혁의 방 문이 열리고 고개만 문 너머로 내민 민혁이 말한다.

민혁 : 성찬아,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선생님 : 이성찬 이거 풀어봐. (잠시 정적) 이성찬 없어?

성찬 : (급하게 이어폰을 낄으며) 선생님 저 있습니다.

그때 성찬의 귀에서 다시 <Danzon No.2>가 들리기 시작한다. 성찬은 음악이 들리자 옅은 미소를 띄고 선생님에게 대답한다.

성찬 : 선생님, 저 코뿔소가 저를 데리러 와서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찬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표정이 핸드폰 화면을 통해 보인다. 선생님은 안경을 위로 올린 채 눈을 찡그리고 화면을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으며 민혁은 한 쪽 눈썹이 올라간 채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다른 아이들 또한 이전 수업과는 다르게 놀란 표정이 보인다.

성찬은 핸드폰을 끄고 창 쪽으로 뛰어가 창 밖을 내다본다. 성찬이 걸옷을 갈아입고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서 서 있다. 성찬이 문에 귀를 대자 누군가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성찬이 귀를 떼고 문 앞에서 있을 민혁이 방문을 열고 성찬을 바라본다.

민혁 : 뭐냐?

민혁이 말을 걸자마자 성찬의 귀에서 음악소리가 끊긴다.

성찬 : (귀찮다는 듯 얘기한다) 뭐가?

성찬은 민혁을 바라보다가 눈을 위로 한 번 굴리고 눈을 찡그리며 얘기한다.

성찬 : (미소를 지으며) 너도 보이게 해줘? 따라 와봐

S# 8 집 앞 (벤치) / 낮 (유성, 컬러) 2.35:1

벤치에서 성찬과 민혁이 나란히 앉아있다. 민혁의 한 쪽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있다.

민혁 : 코뿔소가 뭘 소리야?

성찬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고 천천히 오공본드를 꺼낸다. 성찬은 본드를 민혁에게 건넨다. 민혁이 본드를 건네 받을 때 코뿔소 사진이 나온다.

S# 8-1 집 앞 (벤치) / 낮 (유성, 흑백) <회상씬> >2.35:1

성찬과 서울대학교 과잠을 입은 동훈이 보인다. 화면은 흑백에 노이즈가 끼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으로 3일 전이라고 적혀있다. 한숨을 쉬고 있는 성찬을 동훈이 바라본다.

동훈 : 힘드냐?

성찬 : 고3이 원래 이런 겁니까? 형은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훈 : (성찬을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다) 알려줘?

동훈이 서울대학교 과잠 주머니에서 오공본드를 꺼내 성찬에게 보여준다.

동훈 : 우리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한 애가 없더라. 어떤 애는 이걸로 서울대를 왔대 (웃음)

성찬이 본드를 건네받는다.

동훈 : 성찬아 너 FUGAZI가 뭔지 아냐?

성찬 : (어색한 발음으로) 푸가지요??

동훈 : 아니, 푸가지 말고 FUGAZI. 다시 해봐 FUGAZI.

성찬(N.A.) : 민혁아, 들었냐?

화면이 잠시 멈추고 영상이 뒤로 돌아간다. 동훈이 성찬에게 FUGAZI에 대해 묻는 장면부터 다시 나온다.

성찬(N.A.) : 아니 거기 말고. 더 앞에

영상은 더 앞으로 돌아가 동훈의 “어떤 애는 이걸로 서울대~” 부터 다시 나온다. 대사가 끝난 후 영상이 멈춘다.

성찬(N.A.) : 들었지?

S# 9집 앞 (벤치) / 낮 (유성, 컬러) 2.35:1

성찬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 봉투에 얼굴을 박는 민혁이 보인다. 얼굴을 꺼내는 민혁이 보인다. 민혁이 봉투를 성찬에게 건네고 성찬도 주위 눈치를 살피다 헛기침을 한 뒤 봉투에 얼굴을 넣고 숨을 들이 마신다. 성찬이 봉투에서 얼굴을 뺀다. 둘을 벌떡 일어나 서로를 껴안는다.

성찬 : 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잖아.

성찬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둘은 서로 마주본다.

성찬 : 나중에 내가 좋은 곳도 소개시켜줄게.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원을 꺼내 민혁에게 건네며) 딱 곳 가서 놀다가 와.

성찬의 얘기를 듣는 민혁의 표정이 약간 이상한 것을 성찬은 보지만 잠시 걱정하는 표정을 짓더니 집으로 뛰어간다.

성찬이 집으로 뛰어가는 것이 민혁의 어깨 너머로 보인다. <Danzon No.2>가 들린다.

S# 10 자취방 문 앞 / 저녁 (유성,컬러) 2.35:1

자취방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준희가 보인다. 성찬이 준희의 어깨를 툭툭치자 준희가 뒤를 돌아본다.

음악이 작아진다.

성찬 : (미안해하며) 내가 조금 늦었지? 미안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준희 : (미소를 지으며) 맥주 한 잔 할까?

성찬이 준희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준희에게 키스를 한다. 성찬은 키스를 하며 현관문을 열고 옷을 하나씩 벗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둘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지나간다. 성찬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카메라를 보고 말한다.

성찬 : 여러분, 제가 민혁이를 왜 내보냈겠습니까?(웃음)

성찬이 민혁의 방 문을 닫자 방 문에는 '방해금지'와 '섹스!'라고 적혀있는 종이가 붙어있다. 준희는 이불이 깔아져 있는 바닥에 눕는다. 성찬이 그런 준희를 보고 말한다.

성찬 : (옷을 벗으며) 준희야, 거기는 민혁이 자리고 침대가 내 자리야.

둘이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리고 침대 옆 민혁의 잠자리가 보인다. 옷을 하나씩 벗는 소리가 들리고 민혁의 잠자리로 성찬과 준희의 속옷이 날아온다. 준희의 속옷에는 나무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나무 그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성찬과 준희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S# 11 예다움홀 / 저녁 (유성, 컬러) 2.35:1

극장 안에서 성찬과 민혁이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상을 보고 있다. 음악이 다시 커진다. 영상은 흑백으로 나온다. 영상 속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는 나무 한 그루와 그 앞에 놓여있는 나무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커터칼로 풀을 베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남자가 풀을 원형으로 깎아놓고 카메라 쪽으로 다가간다.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비춘 남자는 민혁이다. 민혁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의자 위로 올라가 밧줄 안으로 목을 밀어 넣는다. 민혁이 그 상태로 카메라를 마주보고 말한다.

민혁 : (무표정으로) 성찬아 정신 차려. (준희 목소리)

영상 속 민혁의 입에서 준희의 목소리가 나와 성찬이 깜짝 놀라 옆자리를 본다. 성찬의 옆자리에는 성찬이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 준희가 앉아있다. 준희가 성찬에게 말을 한다.

준희 : 성찬아 정신차려. 왜 그래.

성찬이 자신의 손을 본다. 성찬의 손은 본드로 범벅이 되어 있다. 성찬이 놀란 표정으로 준희를 바라본다. 성찬의 표정은 금세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뀌며 말한다.

성찬 : 미안, 나 손 좀 닦고 올게.

준희가 바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준희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반으로 접힌 채 찢어진 오공본드가 보인다. 성찬이 본드를 발견하자 준희가 말한다.

준희 : 얼른 손 씻고 와.

자리에서 일어나 준희를 등진 성찬의 표정이 다시 놀란 표정으로 바뀐다.

S# 12 화장실 / 저녁 (유성, 컬러) 2.35:1

불도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성찬이가 물로 손을 닦는다. 성찬은 손을 세게 닦다가 손에서 피가 난다. 성찬은 작은 신음 소리를 내고 손을 더 세게 닦는다. 손을 다 닦은 후 성찬이 자신의 손을 보는데 성찬의 손에서는 피가 나지 않고 떨어지기만 한다. 성찬이 손을 다 닦은 후 세수를 한다. 성찬이 세수를 한 뒤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거울 속 성찬의 표정은 눈이 풀려있고 손을 덜덜 떨고 있다. 그때 민혁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성찬의 뒤로 걸어 다니며 말한다. 성찬의 눈동자는 민혁을 따라 간다. 거울 속에서는 민혁이가 보이지 않는다.

민혁 : (극장 안에서 성찬 앞에 놓여있던 본드와 같은 모양으로 찢어져 있는 본드를 한 손에 든 채 웃으며) 성찬아, 이거 효과 직방이더라.

성찬의 표정은 굳고 눈이 커진다. 성찬은 다시 한 번 세수를 하자 민혁이 보이지 않는다. 성찬은 다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간다.

S# 13 예다움홀 / 저녁 (유성, 컬러) 2.35:1

성찬이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성찬은 상기된 표정으로 준희에게 말한다.

성찬 :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미안해.

준희는 성찬의 말을 듣고는 앞을 본다. 곧 영화가 시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극장 속 스크린에서는 영화 <언제나 맑음>이 나온다. 성찬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살짝 꺼내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성찬의 핸드폰에서는 민혁에게 전화를 거는 화면과 연결중이라는 글자만 성찬의 주머니 사이로 살짝 보일 뿐이다. 성찬과 준희가 영화를 보는 모습이 보인다. 준희는 영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찬의 시선은 여러 곳을 오가며 손톱을 물어 뜯기도 한다. 준희는 영화에 집중을 하던 중 성찬을 한 번 보고는 다리를 꼬고 턱을 귀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그때 스크린에서는 영화 중 <I like myself>라는 음악이 나온다. 성찬은 그 음악이 시작됨과 거의 동시에 말한다.

성찬 :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 가봐야 될 거 같아.

성찬은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준희가 홀로 극장에 남는다. 성찬이 가고 남은 자리 넘어 바닥으로 본드가 보인다. 준희는 본드를 보며 한숨을 쉰다.

S# 14 거리 / 밤 (컬러) 1.85:1

거리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I like myself>는 계속해서 나온다. 성찬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성찬의 옷 색이 튀어 성찬이 금방 눈의 된다. 성찬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S# 15 성찬, 민혁의 집 앞 / 밤 (컬러, 무성) 1.85:1

성찬이 민혁의 집 건물 앞에 서 숨을 거칠게 몰아 쉰다. 성찬은 가만히 있는데 배경에 있는 건물이 멀어진다. (vertigo shot)

S# 16 성찬, 민혁의 자취방 / 밤 (컬러, 무성)

1.85:1

음악 <Danzon No.2>가 나온다. 성찬이 집으로 들어간 뒤 민혁의 방 문 앞에서 문을세게 두드린다.

성찬 : (문을 두드리며) 민혁아! 민혁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성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막으로 나온다.)

성찬이 문을 세게 두드리고는 민혁의 방 문을 열어본다. 민혁의 방 문이 열리고 음악이 작아진다. 성찬은 집으로 들어간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서성인다.

성찬이 민혁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 성찬은 다급하게 그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 창 너머를 확인해본다. 창 밖을 본 성찬이 민혁의 방을 잠시 눈으로 훑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천천히 간다. 성찬의 시선이 향한 쪽에는 극장에 있던 모양과 똑 같은 모양으로 짜여진 오공본드가 있다. 그 옆에는 구겨진 민혁의 성적표도 있다. 성찬은 본드 앞에 주저 앉고는 본드를 한 손에 든다. 들고 무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성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흐른다. 성찬은 잠시 후 본드를 자신의 손에 짜고는 손에 얼굴을 박는다. 그러자 처음 준희를 만나기 전 들리던 음악이 점점 커지고 성찬이 고개를 들고 슬픔이 느껴지는 미소를 짓는다. 그때 준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준희 (V.O.) : 성찬아, 나랑 놀러나 가자~

준희의 목소리를 들은 성찬은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든 뒤 카메라를 향해 한 발을 쏘고는 입으로 총성을 낸다. 그러고는 총 모양 손가락을 머리에 가져다 댄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린다.

S# 17 성찬, 민혁의 자취방 건물 / 밤 (유성, 컬러) 1.85:1

성찬과 민혁이 살고 있는 집이 보인다. 건물 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린다. 총성과 동시에 암전.

-END-